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연세대에 50억원 기부

박삼구(사진 오른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연세대에 학교발전기금 50억원을 기부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14일 연세대 본관에서 '금호아시아나-연세대학교발전기금 협약식'을 갖고 학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50억원을 연세대에 전달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연세대는 박 회장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은 이 기금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교내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1967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기부 외에 박 회장은 서울대에도 '금호예술기금' 이름으로 지난해 해와 올해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앞서 2003년부터 3년 동안 전남대에 모두 18억7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지원, 지역인재를 키우는 데도 앞장서왔다.

24~29일 열리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신해룡 추진단장

“하이테크 접목, 전남농업 미래 보여줄 것”

“올해 박람회는 입체적인 전시와 유비쿼터스 등을 도입, 미래농업이 나아가야 할 기술적인 측면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실무 추진을 맡은 신해룡(51) 지원단장은 “농업인들에게는 FTA체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최근 연구·개발된 친환경 농업의 신기술 등이 전시되는 친환경 농업관을 비롯하여 아이디어 농업관, 녹색명품관, 생명예술관 등 15개의 전시관과 판매장터 2개로 진행된다.

다이어를 짜낸다”며 “개최시기에 맞춰 볼부터 식물을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농업기술원 앞 도로가 편도 1차선에 불과해 주차문제가 신단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고구마 캐기 등 체험행사 대폭 늘려

결 등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희망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꾸렀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농업박람회는 ‘친환경 생명농업! 미래 희망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올해는 전시물의 중복 전시를 막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업인들이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 농업기술관이 신설됐다.

또 지난해 9개이던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는 고구마 캐보기, 감장 채소(무) 수확과 천연염색 체험, 천연 향수·화장품 만들기 등 15 종류로 대폭 늘렸다.

신 단장은 “이전 박람회보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

박람회 거듭될수록 경쟁력 향상

신 단장은 “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남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장을 꼭 방문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5회 박람회는 65만여 명의 관람



객이 찾았으며, 농산물 수출계약 740만불(70억원), 국내 유통업체 구매액 165억원 등 241억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코믹한 ‘마린보이’ 박태환

첫 CF 촬영서 능청 연기 눈길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의 모습을 TV 광고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박태환은 21일 폐교로 남아있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에서 후원사인 SK텔레콤 광고를 촬영했다.

지난 7월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외국에 한국을 알리는 해외홍보 광고를 찍는 적이 있지만 상업 광고에 모델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 제목은 ‘영상통화 완전정복: 두 얼굴의 박태환편’. 박태환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겪는 일화를 소재로 삼았다.

전담 코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박태환이 자신의 교복 차림을 코치가 못 알아보자 곧바로 물안경과 수영모자를 써주며 ‘내가 박태환이 맞다’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특히 물안경과 수영모자를 쓰는 장면에서 박태환은 능청스럽고 재치 넘치는 표정 연기로 코믹함을 최대한 살려내 촬영 감독 및 스태프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SK텔레콤은 전했다.

조대부고 총동창회 ‘한마음 체육대회’



조대부고 총동창회(회장 신우식)는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학동 조대부고 운동장에서 총동문 체육대회를 가졌다. <조대부고 총동창회 제공>

‘아름다운 배우’ 최강희

백혈병 환자 위해 골수 기증

배우 최강희가 백혈병에 걸린 환자를 위해 자신의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했다.

22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최강희는 지난 17일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협회 측은 “영화 ‘내사랑’을 찍고 있는 최강희는 지난달 말 자신과 조건이 맞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주저 없이 유전자검사와 신체검사를 받고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로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필수적인 비혈연간 조직 적합성항원(HLA·Human Leukocyte Antigen)이 일치할 확률은 2만 명 가운데 1명 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조혈모세포는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골수나 탯줄혈액(제대혈) 속에 포함되어 있다.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뼈 속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혈액성분(조혈모세포)을 통상 골수라고 부르고 있다.



박철-옥소리 부부 이어 또...연예계 이혼 잇따라

배우 이영하-선우은숙 부부 결혼 26년만에 협의이혼

배우 이영하(57)-선우은숙(48) 부부가 결혼 26년 만에 협의이혼했다. 두 사람은 최근 과정을 맞은 박철-옥소리 부부와 함께 연예계 대표적인 잉고 부부로 꼽혀왔기에 안타까움을 전해준다.

이영하는 21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서로 편하게 놓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달 전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호 협의 하



에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면서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를 이해해준다. 둘째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헤어졌지만 같이 면회도 다녀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귀순 여배우’ 김혜영도 결혼 3년만에 이혼...가족에게도 숨겨

연기자와 가수로 활동 중인 귀순 여배우 김혜영(32)이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혜영은 2002년 10월 당시 군의관이었던 이도 씨와 결혼했으나 3년 만인 2005년 10월 헤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혜영이 22일 KBS 2TV

‘남희석 최은경의 여유만만’의 녹화에서 직접 밝히며 알려졌다. 김혜영은 이날 “큰 관심과 격려 속에 결혼했는데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스러웠다. 그래서 그동안 주변에 이혼 사실을 숨겨왔다”고 고백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학측

- ▲고민관(전남도청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씨 장남 건일군 조진삼씨 차녀 명진양=27일(토)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최민하씨 장남 건상(송정농업협동조합)군 박홍남씨 장녀 선영(광주 신세계 홍보실)양=27일(토) 낮 12시2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머랄드홀.
▲황정례씨 아들 이충권군 신경우(무안교육장)씨 딸 소원양=27일(토) 오후 1시3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예식홀.
▲최정권(대한일보 이사)씨 장남 재석(대덕전산)군 황경연씨 장녀 옥윤양=27일(토) 오후 1시50분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신태균(영암 문화원장)씨 장남 재현군 천시욱씨 딸 주희양=28일

- (일)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피로연 23일(화) 영암읍 중앙회관.
▲김용철씨 막내 판중군 이행준씨 차녀 희송양=28일(일) 낮 12시 10분 천주교 학운동 성당.
▲이정철씨 장남 명규(현대개발 건설 대리)군 서용기씨 장녀 미영양=28일(일) 낮 12시30분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송영기(용산전력 대표)씨 장남 화중군 정찬길(서울 일곡초 교사)씨 장녀 혜진양=28일(일) 오후 1시10분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주영천(담양 부군수)씨 차남 창현군 고하선씨 차녀 수진양=27일(토) 오전 11시45분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 특실.
▲김진도청 북구지원과장)씨 차남 영훈(롯데 코리아 세븐)씨 지원필(계정)군 김영석(영전산업 대표)이씨) 장녀 선주양=27일

- (토) 낮 12시 에블루선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임재준(전 한일정형외과원장)씨 차남 중열(남부대 교수)군 주순문씨 장녀 오지영(고창여고 교사)양 27일(토)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2층 로즈마리홀.
▲신재희(평산신사 강진군 화수회장)씨 장남 성민군 정병원씨 3녀 현화양=27일(토) 오전 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동창·동문회
▲비어중학교 총동문회 창립 발기인대회=25일(목) 오후 7시 광주과학기술원 9명 기아관. 016-650-4533
▲목과중 개교60주년 기념 졸업생 초청 체육대회 및 총동창회 결성식=26일(금) 오전 10시 목교운동장. 010-5413-8255.
▲재광 흥일교회(회장 김철남) 정기총회=26일(금) 오후 7시 히딩크호텔 6층 샤프트홀. 011-640-8430
▲조선대 장성 동문회 창립총회=26일(금) 오후 7시 장성군 성산한우촌. 017-605-6454
▲학다리고 22회 동창회 정기총

- 회=27일(토) 오전 11시 함평 용천사. 011-604-0063
▲전남대 환경공학과 총동문회 모임=27일(토) 오후 5시 히딩크호텔 6층 샤프트홀. 227-8500
▲담양 창명초교 제 62회 동창회(회장 김승천) 모임=27일(토) 오후 7시 문흥동 한술회관. 011-625-5656
▲수창초교 총동창회(회장 장승우) 수창인 한마음 축제=28일(일) 오전 10시 모교 강당.
▲담양 남초교 제 27 회 동창회(회장 박옥희) 모임=28일(일) 오전 10시 담양남초교 강당. 011-9091-0316
▲경기도 광주·전남 총동창회(회장 정두채) 모임=31일(수) 오후 7시 무안군 청계면 구로나루. 061-452-5531
종친회
▲정원황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 강원도 철원 세장산 향사 봉례(시향)=24일(수) 오전 9시 광전동 터미널. 232-6400

향우회

- ▲재광 해남군 향우회(회장 김재욱) 가족 체육대회=28일(일) 오전 9시 광주월드컵 보조 경기장. 011-627-2015
▲재광 보성읍 향우회(회장 안명섭) 모임=29일(월) 오후 6시30분 미원 회타운. 226-4743

모임

- ▲광주·전남 ROTC 제 16차 정기총회 및 회장·취임식=26일(금) 오후 7시 교보빌딩 10층 리더스 클럽. 529-2944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평화회관) 고품격/저비용/대형주차장 정성껏 섬겼습니다 -대표구좌실- 승정장례식장 T.062-941-4400 (구정동) 고품격/저비용/대형주차장 정성껏 섬겼습니다

- ▲국제라이온스 333-B1(총재 서해식) 한마당 체육대회=28일(일) 오전 9시 영주체육관 내 양궁장. 675-6087~8
부음
▲이대만씨 별세 추재(여천 NCC)·동제(자영업)·현석(자영업)·병학(이랜드)씨 부친상 이규봉(자영업)씨 병부상=발인 24일(수) 금호장례식장 402호. 227-4385
▲정영욱씨 별세 임한택(외교통상부 조약국장)·기홍(보해양조 계장)씨 모친상=발인 23일(화)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203호. 061-271-4444, 016-344-233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문의 (052) 521-1100

“수사 매뉴얼 제작·배포 불법 선거사범 뿌리 뽑겠다”

전남지방경찰청 김 원 석 수사2계장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정당·지위의 높고 낮음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할 것입니다” 22일 ‘선거사범처리 상황실’ 현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불법 선거 단속에 들어간 전남지방경찰청 김원석(54·사진) 수사2계장은 “전남경찰청과 관내 22개 경찰서에 190여명의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 선거사범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연계돼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되고 UCC 등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신고보상금 지급 및 홍보를 통해 범국민적 단속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전 선거운동·후보비

방·공무원 선거개입·사전 선거 운동·선거 폭력 등을 5대 선거사범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선거에 대한 첩보 및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와 엄정한 수사로 유사 선거 사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엄정한 수사를 위해 직원들의 선거법 수사 역량을 높이고, 선거법의 경우 증거가 중요한 만큼 초동 수사 등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